

金銅馬具 一八點

◎ 李朝文房木工藝展

國立博物館에서는 三月九일부터 末日까지 李朝書齋文房木工藝品展示會를 開催하였는바 同展示會에는 本館收藏品 三十五點과 一般愛護收藏家의 五十七點 都合九十三點이 展示되었으며 그 內容은 卓子, 文匣, 文書函, 筆筒, 冊幟, 書床等이다.

◎ 文化財委員 石窟庵出張

一九六三, 一, 二七 第一分科委員會 書面決議에 따라 石窟庵 石窟 設計變更會 最終的으로 決定하기 爲하여 三月十五日 委員長 金庠基, 副委員長 金載元, 李敏載, 委員 金斗鍾, 李相恒, 金元龍, 金重業 諸氏가 現地에 出張키로 되었다.

印度通信(三) 「에로라石窟에서」

黃 壽 永

「파트나」에서는 여러번 博物館을 찾았습니다. 玄關에 陳列되어 있는 「마우리아」期 石造作品 中에서도 Didargani의 夜叉立像은 紀元前二世紀頃의 작품으로 磨彫된 手法도 特色이거니와 寫實的인 彫法은 古代彫刻의 逸品이었습니다. 彫刻室에서는 「간다라」의 半迦像이 稀品の 하나이었으므로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은 Teracotta의 收藏으로도 有名한데 隣近遺蹟의 出土品은 거의 망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Komorahar에서 發見된 Budh-Gaya의 圓板은 高古한 層樓佛殿의 存在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木造塔婆와 關聯되는 中國의 樓閣建物을 考察함에 있어서 반드시 參考되어야 할 資料입니다. 하루는 郊外에 있는 「파트리푸트라」宮址를 찾아 圓形柱礎가 發掘된 遺址도 보았어는데 그 樣式이 페르샤의 宮殿과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紀元前三世紀라고 하는데 阿育王石柱와 같이 磨研된 솜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印度의 古代美術이 Asoka王에서 비롯하였다고 하니 그의 都邑地이었던 「파트나」는 앞으로 注目되는 곳이라 하겠읍니다.

이 곳에서 네팔國이 가장 가깝다고 하기에 數日間 다녀오기로 하였읍니다. 「비자」는 「칼카타」의 네팔領事館에서 쉽게 入手하여 두었기에 한 시간만에 「가두만두」(空港)에 到着하였읍니다. 「파트나」를 떠나자 넓은 恒河以北의 平野가 展開되었고 멀리 東北으로 「히말라야」의 連峰이 보였을 때는 感銘깊었습니다. 恒河와 雪山은 과연 印度의 古代思想과 不可分의 關係를 갖고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도 있었읍니다. 「가두만두」는 山間의 작은 都市이었는데 祠院이 많고 宗教的儀式이 그대로 生活化되고 있음을 보았읍니다. 二日間 이룬만 佛敎寺院과 博物館을 찾았는데 巨大한 「스루파型」佛塔과 多層方形의 祠院建物이 市内外에 多數 現存한은 宗教都市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高麗末에 우리나라에 끼친 元代佛敎美術은 이곳 「네팔」工匠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바 北印과의 地理的條件에서 보아 首肯되는 점이 많았읍니다.

「네팔」에서 다시 「파트나」로 돌아온 翌日(二月三十日)에는 恒河를 건너 汽車와 배-스편으로 「바이샤리」를 찾아 갔읍니다. 이 곳은 八大佛蹟의 하나로서 釋迦入滅直後에 建立된 塔址가 發掘保存되고 있어 初建以來 四次에 걸친 重修의 흔적을 볼 수 있었읍니다. 또 그곳서 發見된 舍利容器와 藏置物은 「파트나」의 「자이스알」研究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들에 對하여서는 마르 報告하려 합니다.

二月一日 「파트나」를 떠나 佛陀四大靈場 中에서도 으뜸가는 初轉法輪의 땅 「사르나트」에 이르렀읍니다. 이 곳은 「베나레스」 郊外 六哩의 地點이오며 우리의 慧超도 찾아왔던 곳입니다. 비단 慧超뿐 아니라 新羅의 巡禮僧들은 거의 全部이 곳을 찾아왔던 것이 틀림 없읍니다. 이 곳에서는 博物館에 附屬된 宿舍에서 數日間 머무르는데 鹿野苑址가 隣接하고 있어 아침 일찍부터 日暮에 이르기까지 「다멕크」의 大塔을 돌기도 하고 혹은 伽藍址를 찾기도 하였읍니다. 이 곳 博物館은 규모는 작고 陳列品은 鹿野苑에서 發掘된 것인데 모두 優秀한 것만 이었습니다. 그 中에서도 印度의 國章이 되어 있는 四頭獅子의 Asoka王石柱頭, 또는 「파라」比丘施納의 大菩薩像이나 初轉法輪坐像 등은 유명한 作品이어서 처음으로 實物을 相對하고 즐김기도 하였읍니다. 하루는 「베나레스」市內를 찾아 恒河에서의 沐浴光景을 보았고 또 이 곳 Hindu 大學에서 主管하는 Raf Ghat의 發掘現場을 찾기도 하였읍니다.

二月 四日 새벽 다시 北上하여 夕陽에 釋迦入滅地인 「구시나가라」에 도착하였읍니다. 이 코스는 慧超와 反對가 되었어는데 그의 記錄에 의하면 매우 험악한 곳이라 하였읍니다. 그런데 기차와 배스에 앉아 하루만에 당도하니 옛날의 苦難

을 짐작할 도리는 없었으나 길과 風景이 옛날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졌을
니다. 이곳에는 새로 마련된 殿塔이 있고 그 周圍에는 僧院發掘지가 깨끗이 整
理되어 있었습니다. 印度의 佛蹟은 모두 昨今世紀에 걸쳐서 考古學發掘로서 들
어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重要な 곳은 中央政府의 管理로서 公園과 같이 가꾸
어 놓았습니다. 이 같은 곳에 찾을 때마다 우리의 古蹟特히 新羅의 臨海殿址나 皇
龍寺址의 오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翌朝이 곳에서 멀지 않은 釋尊茶毘處로 古塔을 찾은 다음 卽시 出發「고라
카폴」驛에서 汽車로 바뀌라고 저녁七時「노갈푸」驛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곳
驛頭에서 警察에 制止되었기에 釋迦誕生地인「룬비니」行을 斷念하고 말았습니다.
그 곳이 國境을 六哩넘어서는「내팔」땅이기에 證明書가 必要하다는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아무手續없이 다녀왔다고 하기에 不快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中
共侵入에 따르는 事態일 것이라고 自身을 說得시키면서 같은 車로 深夜에「과
루란폴」에 이르렀는데 이 곳에서는 無斷乘車하였다고 倍額의 運賃을 치르게 되었
습니다. 八大聖蹟을 찾으려는 計劃은 이곳에서 挫折되었으므로 다른 한 곳「상가
시아」도 斷念하고 갈았는데 이 두 곳에는 注目할만한 遺物이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待合室에서 하루밤을 새우고 첫 卽시 車에서 四十
里 北方인「사헤트·마헤트」에 이르러 祇園精舍와 舍衛城의 遺址를 찾았습니다.
二月六日의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釋尊이「二四兩期를 지냈다」는 곳이며 富裕한
商人이 金貨를 땅에 퍼서 用紙를 얻었다는 그리는 모두 發掘되어 있었으며 贊
속의 城址는 유명한 佛陀의 奇蹟을 연상케 하여 주었습니다.

이날 午後車로 떠나 밤八時「라크노」에 당도하였습니다. 人力車는 이 곳에서 제
일 큰 호텔로 인도하여 주었기에 비싼값을 치르기는 하였으나 몸은 편히 될 수 있
었습니다.「라크노」에서는 州立博物館을 찾았는데「마투라」에서 初期에 發掘된
유품이 모두 이 곳에 集中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Jain教의 作品은 初期의
佛敎彫刻과 恰似함이 注目되었습니다. 午後에는 梨花女大에서 一年間 奉職한 바
있는「아부라함」女史를「이사바라」大學으로 찾아 歡迎을 받았고 郊外의 回敎宮
殿을 보고자 夕陽길을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二月八日 아침 밤車편으로「아라하바트」에 到着하였습니다. 豫定日보다 일렀
기에 아大學의 古代史料主任인「찰마」敎授를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敎授를
이親切히 맞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校內의 博物館도 兩日에 걸쳐 자세히 說明
하여 주었고, 하루는 百里 떨어진「카우삼비」古都址의 發掘現場까지 同行하여 주

었습니다. 이 發掘은 十餘年에 걸친 大規模의 作業으로서 여러 곳에서 소문을 들
은 바도 있었는데 果然規模도 크고 重要な 成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發掘現場은
城址·宮殿址·寺院址로 區分되어 있는 바 遺物의 年代는 紀元前十一世紀로부터 紀
元後八世紀에 이른다 하며 이 發掘을 통하여「인더스」河文明 以後의 古代史의
一面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인더스」와「간디스」兩河文明의 間隙을 메꾸는 努力
이 印度考古學의 當面課題라 하며 그 目標은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
습니다. 그 외에도 印度 最古의 石造城廓 博築아「치手法」또는 人間犧牲의 事實
等이 이 곳서 確認되었다고 하며 寺院址에서는「아소가」王塔이 옛모습을 보이
고 있었습니다. 이 곳 踏査는 무척 힘이 들었으나 많은 報告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二月十一日 아침에 夜行車로「아그라」에 내렸습니다. 이 곳에서는 有名한「다
지마할」과 Red Fort를 찾았는데 큰 규모에 비하여 感銘은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高麗 恭愍王의 魯國公主에 대한 사랑과 그에 따르던 陵墓經營의 史實이 이 곳에서
聯想된 것은 서로 닮은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翌日「마투라」博物館을 다시 찾은 다음 夕陽에「뉴·델히」에 當到하니 내집
에 돌아온 듯하였습니다.
四十일에 걸친 旅行을 無事히 끝냈다고 생각하니 만족한 느낌과 즐거움이 솟
아오르는 듯하였습니다. (三·一節 아침에)

第四卷 第四號 通卷三十三號
慶州 南山 彌勒谷의 磨崖石佛坐像

秦 弘 燮

慶州 南山 彌勒谷에 菩提寺가 있고 그 境內에 完存한 石佛坐像이 있음
은 周知의 事實이며 이미「慶州南山佛蹟」에 詳細히 紹介된 바 있다. 그런
데 이 溪谷을 거의 다 올라가서 法堂에 이르기 전에 小屋이 있고 여기
서 左便으로 꺾기는 狹路를 따라 비탈길을 東쪽으로 접어들어 일마안가서
右便으로 위를 보면 大小 岩塊가 散在한 가운데 東北方으로 面한 幅一·
二m 高三·二m의 岩石이 있어 그 正面에 如來坐像이 彫刻되었다.